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설명자료

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2017년 조사에서는 보험산업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7.0%¹⁾로 나타남
 - 2017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4.9%, 가구당 가입건수는 4.0건으로 조사됨
 - 2017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9.5%, 가입건수는 가구당 3.4건임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구당 가입률(%)	96.4	98.0	96.1	96.1	97.5	99.7	96.3	97.0	
생명보험	가입률(%)	88.0	87.3	86.3	83.0	85.8	87.2	81.8	84.9
	가입건수(건)	4.1	3.8	3.8	3.6	4.0	3.5	3.4	4.0
손해보험	가입률(%)	85.9	91.4	87.2	86.8	87.7	91.8	88.9	89.5
	가입건수(건)	2.5	3.0	2.9	3.1	3.3	3.4	3.5	3.4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 기준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16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 전년대비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16년 대비 18.8%p 하락함
 - 세대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60대 이상(9.2%p)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체 가입률	99.7	96.3	97.0	87.2	87.2	84.9	91.8	88.9	89.5

1)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의 가입률을 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함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거주 지역별	대도시		99.6	99.1	97.9	85.5	85.5	87.3	90.6	92.0	91.8
	중·소도시		99.6	94.8	96.8	87.3	87.3	84.0	92.4	87.0	88.0
	군지역		100.0	88.7	93.6	95.8	95.8	77.0	94.8	82.0	85.6
세대주 연령	30대		100.0	99.5	99.0	87.1	85.6	87.4	96.0	94.6	91.9
	40대		100.0	99.8	99.6	91.2	88.8	90.2	97.3	95.3	95.3
	50대		100.0	98.3	98.4	86.8	86.3	91.0	95.9	91.7	94.0
	60대 이상		98.5	87.6	93.9	84.6	66.1	75.3	79.9	73.1	83.3
가구 소득	저소득		98.3	86.5	87.7	75.3	60.5	66.5	73.2	66.5	69.5
	중소득		100.0	99.0	98.8	86.2	85.4	87.2	94.3	94.2	92.3
	고소득		100.0	99.0	100.0	93.0	92.9	93.1	97.8	97.4	97.9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2017년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94.5%를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의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78.2%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78.4%를 기록함

<표 3> 개인별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명보험	77.3	79.3	78.9	73.4	78.2
손해보험	74.6	74.3	79.7	76.2	78.4
전체	94.0	93.8	96.7	93.8	94.5

■ 전체적으로 30~50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대와 60대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또한, 저소득 가구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 개인별 보험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체 가입률		96.7	93.8	94.5	87.2	73.4	78.2	91.8	76.2	78.4
성별	남성	97.0	95.5	94.2	84.0	69.9	77.0	93.4	86.0	83.4
	여성	96.4	92.2	94.8	90.3	76.9	79.3	90.1	66.5	73.4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연령	20대	92.4	91.9	88.8	85.9	62.4	69.7	90.9	67.5	63.0
	30대	98.7	98.6	96.7	87.1	78.8	77.6	96.0	83.8	81.7
	40대	100.0	97.3	98.9	91.2	82.2	86.6	97.3	84.1	86.6
	50대	97.9	98.3	98.0	86.8	82.1	87.9	95.9	83.3	87.7
	60대 이상	93.8	84.5	90.1	84.6	61.5	69.1	79.9	62.9	71.5
직업	화이트칼라	98.5	98.9	97.6	92.5	78.3	85.7	94.6	87.5	82.6
	블루칼라	98.0	96.3	93.6	83.3	75.5	75.8	93.1	76.5	76.4
	농/임/어업	100.0	96.2	78.9	92.9	72.8	53.7	100.0	82.9	68.4
	자영업	96.4	77.8	98.2	84.5	44.4	86.1	90.6	66.7	85.6
	주부	96.8	89.9	95.6	89.4	77.9	75.8	92.6	63.7	75.1
	은퇴자	94.6	91.7	89.5	83.9	66.7	36.8	80.4	83.3	89.5
	학생	0.0	0.0	79.7	0.0	0.0	57.6	0.0	0.0	59.3
	무직/기타	82.1	75.0	71.0	78.6	38.9	54.8	80.4	55.6	48.4
학력	중졸 이하	88.1	66.3	81.1	82.2	43.6	55.6	69.3	40.6	57.7
	고졸	96.4	96.5	94.9	83.6	77.0	77.5	91.4	76.8	77.9
	대재 이상	98.5	97.6	96.9	91.6	78.2	83.7	96.2	83.9	83.3
결혼 여부	기혼	97.5	94.1	95.9	88.3	75.1	80.3	92.5	77.2	81.3
	미혼	93.4	92.8	89.2	82.7	67.2	69.9	88.9	72.4	67.3
가구 소득	저소득	94.5	83.5	85.5	71.1	57.1	62.6	64.7	59.8	61.3
	중소득	97.9	96.8	95.7	78.6	76.4	79.4	82.9	80.4	81.2
	고소득	96.7	96.8	98.4	82.5	81.4	86.8	83.6	81.7	84.3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의 가입률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실손의료보험(26.5%), 사망보험(18.7%) 등의 순임

<표 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이 보험	비가입	
전체	(2,200)	63.4	26.5	18.7	15.7	12.4	5.0	4.2	1.9	1.5	15.1	
성별	남성	(1,092)	59.4	25.3	23.2	15.9	13.5	5.4	3.4	1.6	0.5	16.8
	여성	(1,108)	67.2	27.6	14.3	15.4	11.3	4.6	5.0	2.2	2.5	13.4
연령	20대	(357)	48.2	27.7	12.0	11.2	5.0	2.2	3.6	0.0	1.1	15.1
	30대	(393)	60.6	32.1	15.3	15.0	8.1	4.8	3.6	0.5	5.1	13.0
	40대	(461)	70.1	29.5	27.3	16.1	22.8	8.5	4.8	1.7	2.2	9.3
	50대	(446)	74.7	26.7	25.6	20.9	18.2	6.7	6.1	2.7	0.0	9.2
	60대 이상	(543)	60.4	18.8	12.5	14.5	6.6	2.6	2.9	3.7	0.0	26.3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저축성 보험	간병 보험	어린이 보험	비가입	
지역 규모	대도시	(1,006)	66.0	25.2	18.1	10.9	14.4	5.2	5.5	1.3	2.1	12.7
	중소도시	(1,007)	62.7	28.4	18.9	21.2	11.3	5.6	3.5	2.5	1.2	16.0
	군지역	(187)	52.9	22.5	20.9	11.8	7.0	1.1	1.1	2.1	0.5	23.0
직업	화이트칼라	(580)	64.8	33.6	27.8	17.6	17.8	6.9	5.2	0.7	1.0	9.5
	블루칼라	(611)	62.0	24.2	14.2	13.7	12.9	3.1	4.6	2.6	1.5	17.3
	농/임/어업	(95)	45.3	7.4	15.8	10.5	2.1	0.0	0.0	2.1	0.0	38.9
	자영업	(396)	71.5	29.0	25.0	17.4	12.6	6.6	2.0	2.5	0.8	10.4
	주부	(409)	67.2	22.7	10.3	16.6	9.0	5.6	6.1	1.7	3.4	15.2
	은퇴자	(19)	26.3	10.5	10.5	5.3	0.0	0.0	0.0	5.3	0.0	57.9
	학생	(59)	33.9	27.1	6.8	8.5	0.0	1.7	1.7	0.0	3.4	18.6
	무직/기타	(31)	41.9	19.4	3.2	19.4	3.2	3.2	0.0	6.5	0.0	29.0
	중졸이하	(196)	49.0	12.2	7.7	12.2	1.0	0.0	1.0	2.0	0.0	40.3
교육 수준	고졸	(1,057)	65.1	26.7	17.8	14.9	11.5	3.8	3.5	2.7	1.2	14.8
	대재 이상	(946)	64.5	29.2	22.0	17.3	15.6	7.4	5.6	1.0	2.2	10.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2.0	18.5	9.4	10.8	4.9	0.7	2.2	3.0	0.2	37.4
	중소득	(1,226)	65.5	25.9	17.5	15.6	9.9	4.5	3.4	1.9	2.1	20.6
	고소득	(568)	66.9	33.3	28.0	19.4	23.1	9.2	7.2	1.2	1.2	13.2

주: 은퇴자는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1.3%), 40대(77.0%),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53.9% < 중소득 71.0% < 고소득 74.8%) 개인별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2017년 장기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은 2016년 67.4%에 비해 소폭 상승함
- 자동차보험은 남성(70.7%), 40대(60.1%), 50대(59.0%), 저소득보다는 중소득(50.6%), 고소득(53.7%) 가구에 속한 개인의 가입률이 높음

<표 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2,200)	68.9	47.5	0.9	0.4	21.6	
성별	남성	(1,092)	71.3	70.7	0.7	0.3	16.6
	여성	(1,108)	66.4	24.7	1.1	0.5	26.6
연령	20대	(357)	56.6	26.1	0.3	0.3	37.0
	30대	(393)	71.0	55.0	1.8	0.8	18.3
	40대	(461)	77.0	60.1	0.9	0.4	13.4
	50대	(446)	76.9	59.0	1.3	0.2	12.3
	60대 이상	(543)	61.9	36.3	0.4	0.2	28.5
지역규모	대도시	(1,006)	73.7	48.4	0.7	0.4	18.1
	중소도시	(1,007)	64.7	47.5	1.2	0.4	24.7
	군지역	(187)	65.2	43.3	0.5	0.0	24.1

특성별	사례 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직업	화이트칼라	(580)	72.4	59.1	1.6	0.2	17.4
	블루칼라	(611)	68.9	50.4	0.3	0.3	23.6
	농/임/어업	(95)	55.8	33.7	0.0	0.0	31.6
	자영업	(396)	72.0	66.7	1.3	0.3	14.4
	주부	(409)	67.0	17.4	1.0	0.7	24.9
	은퇴자	(19)	84.2	68.4	0.0	0.0	10.5
	학생	(59)	55.9	11.9	0.0	1.7	40.7
	무직/기타	(31)	41.9	25.8	0.0	0.0	51.6
교육 수준	중졸이하	(196)	53.1	20.9	0.5	0.0	42.3
	고졸	(1,057)	68.4	42.4	0.6	0.2	22.1
	대재 이상	(946)	72.7	58.9	1.4	0.6	16.7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06)	53.9	29.8	0.2	0.0	38.7
	중소득	(1,226)	71.0	50.6	1.0	0.3	18.8
	고소득	(568)	74.8	53.7	1.2	0.7	15.7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²⁾은 95.8%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90.8%를 나타냄
-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직관채널과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2016년에 비해 상승함
 - 생명보험의 경우 직관채널과 은행채널 가입률이 전년대비 각각 0.9%p, 0.5%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직관채널과 은행채널 가입률이 각각 5.3%p, 0.1%p 상승함

<표 7>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가입률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명보험	대면	96.3	96.3	96.0	95.5	96.4	97.3	96.8	95.8
	직관	1.6	2.1	2.6	2.4	1.9	1.6	2.7	3.6
	은행	2.5	1.9	1.6	3.1	3.2	1.7	1.9	2.4
	기타	0.0	0.0	0.0	0.0	0.0	0.0	2.0	2.8
손해보험	대면	92.6	95.5	92.7	93.2	94.2	94.0	95.2	90.8
	직관	7.7	4.7	6.2	8.0	9.1	7.8	8.0	13.3
	은행	0.5	0.5	1.1	1.9	1.3	0.3	0.9	1.0
	기타	0.0	0.0	0.0	0.0	0.0	0.0	2.6	4.3

주: 1) 상기 채널별 가입률은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 채널별 비중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의 구분은 보고서 본문 < I. 조사의 개요 > 참고

3)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

4) 기타채널은 제외함

2) 전체 생명보험 상품 가입자 중 각각 채널로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간병보험이 9.6%로 가장 높았음
 - 간병보험의 뒤를 이어 연금보험 8.6%, 질병 보장보험 8.5%, 실손의료보험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6.5	94.1	5.9
질병 보장보험	63.4	91.5	8.5
재해 상해보험	15.7	94.2	5.8
간병보험	1.9	90.4	9.6
사망보험	18.7	96.3	3.7
저축성보험	4.2	94.3	5.7
연금보험	12.4	91.4	8.6
어린이 보험	1.5	98.8	1.2
변액보험	5.0	99.3	0.7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44.1%, 장기 손해보험 5.0%로 나타남

<표 9>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7.5	55.9	44.1
장기손해보험	68.9	95.0	5.0
상해보험	0.9	97.1	2.9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모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자금 마련(15.7%), 저축수단(6.1%), 유산상속 목적(2.6%)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8.0%였으며, 목돈 마련 저축수단(2.0%), 노후자금 마련(1.7%), 세제혜택 유리(1.0%) 등이 뒤를 이음

<표 10>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6	2017	2016	2017
위험보장	94.2	96.0	97.8	98.0
노후자금 마련	19.0	15.7	1.6	1.7
목돈마련 저축수단	10.7	6.1	3.0	2.0
유산상속 목적	5.2	2.6	0.3	0.3
자산증식 투자수단	2.9	1.2	0.9	0.5
세계혜택 유리	0.3	1.0	0.3	1.0

4.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자의 보험회사군별 가입률의 경우 대형사에 가입한 비율이 생명보험의 경우 65.4%, 손해보험 79.9%로 조사됨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다음으로 중소형사 27.7%, 외국사 9.6%, 공제/기타 2.8%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사 19.1%, 외국사/직판사 5.1%, 공제/기타 0.7% 순임

<표 11> 최근 3년 이내 가입자의 보험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고려 사항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형사		72.6	75.8	73.6	62.9	65.4	78.2	82.6	82.3	77.0	79.9
중·소형사		15.7	21.8	21.8	23.2	27.7	20.6	17.5	18.7	20.1	19.1
외국사/직판사		12.3	9.8	8.7	9.8	9.6	5.1	6.0	3.6	1.8	5.1
공제/기타		6.0	5.9	4.8	4.0	2.8	2.7	1.0	2.0	1.1	0.7

주: 3년 이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군별 가입률을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상품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고, 브랜드 신뢰성(20.7%), 가격 경쟁력(13.8%), 서비스 지원(13.2%) 순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42.7%)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19.7%)과 가격 경쟁력(16.3%), 서비스 지원(12.7%)이 뒤를 이음

<표 12>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고려 사항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상품 경쟁력		48.7	48.9	48.0	45.8	44.0	48.2	45.4	46.9	40.8	42.7
브랜드 신뢰성		18.3	17.2	15.6	22.8	20.7	17.8	18.7	16.6	21.6	19.7
서비스 지원		14.3	15.1	14.3	11.2	13.2	14.3	17.5	16.4	14.5	12.7
가격 경쟁력		10.8	10.4	11.0	11.2	13.8	12.2	10.4	12.8	12.3	16.3
개인적 관계		4.3	4.3	4.2	4.4	2.9	5.3	4.7	2.8	5.4	3.8
회사 규모		1.8	2.7	2.7	2.2	1.9	0.8	1.8	1.8	2.2	2.1
설계사 전문성		0.5	0.7	1.4	1.1	0.9	0.4	0.5	1.0	1.3	0.7
경영 철학		0.4	0.3	0.6	0.3	0.7	0.1	-	0.6	1.2	0.7
과거 거래 경험		0.4	0.3	1.2	0.3	1.0	0.6	0.5	0.6	0.5	1.0
계약 편의성		0.5	0.2	1.1	0.8	0.9	0.3	0.5	0.6	0.3	0.7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II.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실손의료보험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가입³⁾ 여부, 가입 유형, 가입 금융기관 종류, 그리고 가입 시기를 조사하였음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했다 77.8%(중복가입 제외)(개인 실손의료보험 77.1% + 단체 실손의료보험 2.5%), 가입하지 않았다 21.5%로 응답자 5명 중 4명 정도는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했다		가입하지 않았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	
전체	(2,200)	77.1	2.5	21.5

3) 조사시점 이전 한 해 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한 경우임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에 대해서는 단독형(53.1%)이 특약형(46.9%)보다 6.2%p 높게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기관으로 손해보험회사(66.1%), 생명보험회사(33.1%), 우체국 및 기타 공제(0.8%) 순으로 나타남

<표 1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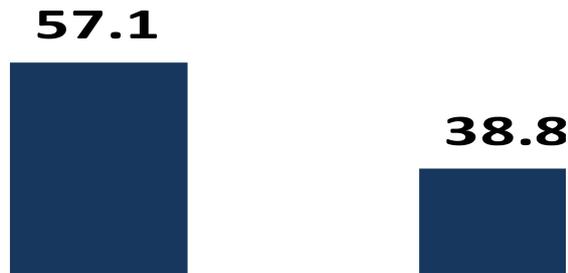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해당 없음
전체	(1,728)	66.1	33.1	0.8	0.1

-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를 확인한 결과, 2010년대 전반(55.2%), 2000년대 후반(27.0%), 2010년대 후반(17.7%)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 주기는 5년이, 본인부담의료비(보험회사 환급률)는 90%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주기에 대해서 5년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34.0%), 비갱신형(19.3%), 1년(12.2%)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의료비 보장률(보험회사 환급률)에 대해서는 90%(45.0%), 80%(29.4%), 100%(14.8%) 순으로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응답이 나타남(모름: 10.7%)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기준 보험료는 69,985원⁴⁾인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청구 절차의 간편함이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속한 보험금 처리(4.09점),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3.97점), 갱신 시 제공된 서비스(3.84점)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경험을 확인해본 결과, 가입자 10명 중 1명 수준인 8.5%만 해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 이용이 적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38.8%), 갱신기간을 놓쳐서(15.6%)등의 순으로 나타남

4) 대다수의 응답자가 기존 보험 상품과 실손의료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납입 보험료에 대해 통합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월납 보험료가 다소 높게 측정됨

<그림 1> 실손의료보험의 해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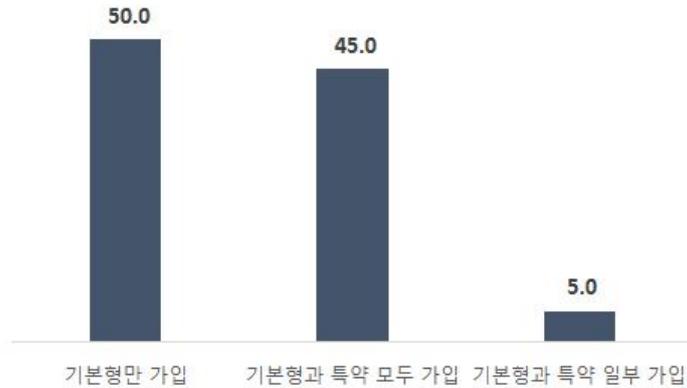
(n=147 / 단위: %)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35.8%),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27.8%), 가입을 거절당해서(10.0%),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3.8%)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2.8%로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83.3%), 화이트칼라(67.6%), 대재 이상(6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을 어떤 종류로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기본형만 가입(50.0%)이 가장 높았고, 기본형과 특약 모두 가입(45.0%)이 그 뒤를 이음

<그림 2> 새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n=202 / 단위: %)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연, 운동횟수 늘리기, 식단관리 강화, 스트레스 관리, 금주 혹은 절주, 비만관리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각각 가장 많았음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연할 계획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3.1%),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동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1.9%),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11.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식단관리 강화 계획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7.8%), 30일 이내에는 있다(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4.8%), 30일 이내에 있다(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금주 혹은 절주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7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2.0%),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변화를 위해 비만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16.8%), 30일 이내에 있다(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5>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미 6개월 이상 동안 실천하고 있다
금연	(2,200)	78.8	13.1	2.1	4.8	1.2
운동횟수 늘리기	(567)	54.5	21.9	8.0	4.4	11.1
식단관리 강화	(2,200)	67.9	17.8	6.1	3.8	4.5
스트레스 관리횟수 늘리기	(2,200)	73.7	14.8	7.2	2.8	1.5
금주 혹은 절주	(2,200)	79.0	12.0	2.6	1.1	5.3
비만관리	(2,200)	69.3	16.8	5.9	2.6	5.4

■ 금연, 운동횟수 늘리기, 식단관리 강화, 스트레스 관리횟수 늘리기, 금주 혹은 절주, 비만관리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도움 및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천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늘어남

- 금연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0%), 30일 이내에 있다(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동 횟수 늘리기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9%), 30일 이내에 있다(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식단관리 강화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6.3%), 30일 이내에 있다(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관리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5.2%), 30일 이내에 있다(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금주 혹은 절주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6%), 30일 이내에 있다(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만관리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상담, 문자알림,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이용 서비스 등) 및 자율적 개선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3.7%), 30일 이내에 있다(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도움 및 자율적 행동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 계획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금연	(567)	53.6	31.0	11.8	3.5
운동횟수 늘리기	(2,200)	40.2	29.9	17.6	12.3
식단관리 강화	(2,200)	48.3	26.3	17.0	8.4
스트레스 관리횟수 늘리기	(2,200)	53.9	25.2	16.0	4.9
금주 혹은 절주	(2,200)	61.5	23.6	9.9	4.9
비만관리	(2,200)	55.2	23.7	14.6	6.5

-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기존 상품과 차이 없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강함(28.6%),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약함(17.6%) 순으로 참여 의향이 나타남

<표 17> 생활습관 개선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약함	기존 상품과 차이 없음	기존 상품보다 가입 의향 강함
전체	(2,200)	17.6	53.8	28.6

3. 노후생활 준비 실태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61.0%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39.0%)는 응답에 비해 높았음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으로는 공적연금(52.6%), 은행예금(18.6%), 연금저축(13.6%), 부동산(7.3%)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30.3%), 관심이 부족해서(13.2%)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 중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등)이 필요한지 물어 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98.2%로, 불필요(1.8%)하다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필요한지 물어 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78.5%로, 불필요

(21.5%)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 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24.0%로, 불필요(76.0%)하다는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기타소득이 필요한지 물어 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38.1%로, 불필요(61.9%)하다는 응답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노후 대비 생활자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원 중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등)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소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월별 예상소득액을 물어본 결과,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4.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

■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28.7%로 나타남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 중’(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완료(연금 대기 중)’(19.0%), ‘연금수령’(3.0%) 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은 ‘연금수령’(79.0%), ‘연금+일시금’(18.6%), ‘일시금(2.3%) 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가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69.6%), 보통(27.5%), 불만족(3.0%)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1순위)로는 ‘수익률이 낮아서’(52.6%),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26.3%)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남

■ 주식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26.9%)는 응답이 없다(73.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상품 투자금액을 조사한 결과, 5천만 원 미만(81.6%), 1억 원 미만(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천만 원 미만’은 20대(97.4%), 30대(9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투자형’이 43.3%로 가장 높았고, 중립투자형(30.0%), 투자하고 있지 않음(19.0%), 공격투자형(7.7%)순으로 나타남
 - 향후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 적립금 운용 방식을 살펴본 결과,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37.4%),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36.5%),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소 금융상품 투자성향을 살펴 본 결과,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39.8%),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50%’(35.0%), ‘안전자산 90%, 위험자산 10%’(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46.3%),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4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29.2%로 가장 높았고,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27.3%),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6.6%),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비율은 7.4%에 불과함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14.8%), 아니오(85.2%)로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퇴직연금 연금수령 선호도

-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60.1%로 가장 많았고, DC형(27.0%), DB형(8.9%), IRP(7.4%)순으로 나타남

- 은퇴시점이 다가 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 본 결과, 연금(80.5%), 일시금(19.5%)순으로 나타남

-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선호하는 연금수령 기간을 살펴본 결과, ‘종신’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년(22.1%), 20년(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연성보험사기 관련

■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연성보험사기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라는 응답이 53.5%

■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한 비율은 32%에 불과

○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68.0%)가 예(32.0%)에 2배 이상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8> 연성보험사기 처벌 동의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	(2,200)	32.0	68.0